

Audiophile

8

1998년 11월 12일 등록
서울 라 08552/통권 제9호
1999년 7월 25일 인쇄
1999년 8월 1일 발행
시원 출판/우편 번호 157-011
서울 강서구 화곡1동 924-2
신성 월드 오피스텔 407호

The monthly magazine for music lovers & audiophiles

특집 Stylish Audio

오디오파일 스페셜 / 나그라 PLP 프리앰프

집중 분석 / JBL Ti2K 스피커 시스템

Listen View / Thiel MCS 1 스피커 시스템

휴게실 / 장마철 오디오 기기 관리 요령

Audiophile Report

홈 시어터 특강



Audio Nostalgia / RCA 77 DX 마이크로폰

오디오 자작 캠프 / 진공관 앰프 제작의 A부터 Z까지 ③

해외 자작기 / 6550 푸시풀 삼극관 접속 40W, UL 접속 60W 파워 앰프





●나그라 PL-P 프리앰프. 현대 하이엔드 프리앰프로션 드물게 복고적 색채를 지닌 독특함이 있다.

Nagra PL-P Preamp

전체 조화 중시하는 강렬한 터치에 음

PL-P가 들려주는 음은 유연하고 아름답다. 동사의 845 파워 앰프와 조합한 음은 세부적인 디테일을 중시하는 감각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전체적 조화를 중시하는 터치에 강렬함을 우선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윤광준 / 본지 편집위원

프로 엔지니어 세계에서 나그라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고성능에 걸맞는 정밀한 기계 가공과 콤팩트한 크기는 현장에서 활약하는 프로들로부터 신뢰와 안심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나

그라가 컨슈머용 하이엔드 오디오 분야에 진출했고, 96년 스테레오파일 쇼에 프로토타입을 선보인 후 제품화된 첫 제품이 바로 PL-P다.

컨슈머용이라는 적절한 변신을 기대했던 팬들의 마음과 아랑곳없이 완성

된 것은 기존 아날로그 테이프 레코더 4S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프로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성능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 제품은 나그라의 고집과 지향을 일목 요연하게 보여준 것이

기도 하다. 하이엔드 프리앰프의 성능을 나그라식의 필요 최소 크기로 완성시킨 기술적 역량은 감탄스럽다. 그것도 진공관식으로. 노트북 컴퓨터 정도의 크기에 포노 이퀄라이저, MC 승압 트랜스, 헤드폰 전용 출력부, 여기에 충전 전지와 DC to DC 레귤레이터까지 수납되어 정밀한 소형 기기를 만들어 온 나그라의 장기가 그대로 응축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감탄 자아내게 하는 집적도 높은 실장 기술

나그라식의 강렬한 존재감은 알루미늄 본체의 가공 정도와 출력 지시 미터의 독특함을 포함한 패널 디자인에 머무르지 않는 것 같다. 유심히 이 앰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편리성을 이유로 최근 기기들이 소홀하게 다루는, 만지고 돌리고 하는 조작 요소를 예전의 기계들이 갖는 친숙함으로 회복시켰다는 인상이 든다. 첨단 디자인의 경직성에 왠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에게겐 과거 명품들이 갖는 인간 친화적인 따스함을 이 기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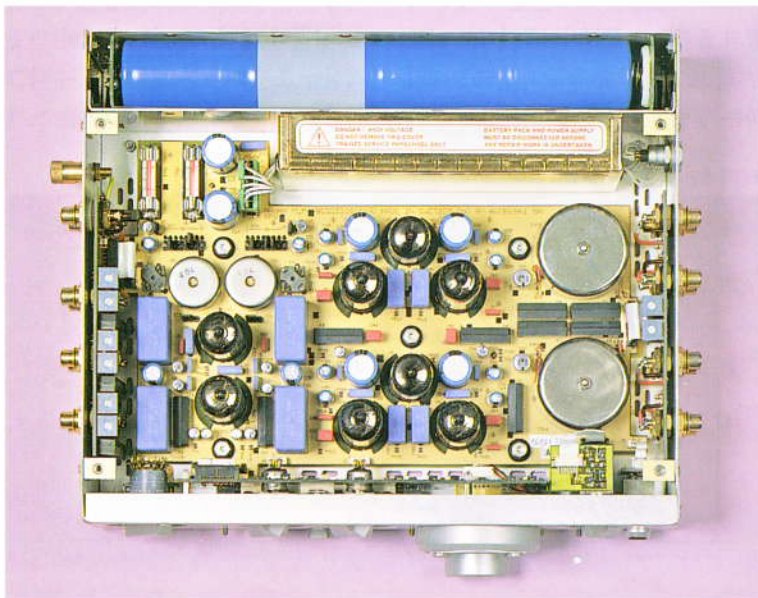
같다.

시대의 유행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오디오 콤포넌트 가운데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프리앰프에서 보고 만지는 조작의 쾌감은 중요하다. 정교 치밀한 기계 가공미와 아날로그 미터의 조합은 이러한 부분을 중요시하는 오디오파일들에게는 소중한 요소이다. M 타입 라이카 카메라의 정밀함과 렌즈 성능은 이를 아는 사진 애호가

들에게 대체물을 만들 수 없다. 단 한번의 경험으로도 통하는 손맛과 눈맛의 깊은 인상은 한번 길들여지면 헤어 나기 어려운 것처럼, PL-P의 디자인과 조작감은 매너리한 기질을 가진 오디오파일의 취미성을 충분히 자극할 것 같다. 현대 하이엔드 프리앰프로선 드물게 복고적 색채를 지닌 독특함이 있다.

설계를 담당한 엔지니어는 디지털 전문가였다고 하는데, 미적 감각을 살린 새로운 프리앰프의 기획 의도에 적합한 소자를 찾다보니 결국 진공관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듯한 부품 레이아웃이 눈에 띈다. 디지털 엔지니어의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된, 회로의 유기적 연관이 부품 실장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설계로 완성되어 있다. 좌우에 입·출력 단자를 배치한 독특한 설계는 신호의 이동 경로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왼쪽의 포노 이퀄라이저부는 나그라제 MC 승압 트랜스를 탑재해서 시판되는 카트리지에 대해 폭 넓게 대응하며 MM/MC 전환과 임피던스 전환은 기관 위의 DIP 스위치로 간단히 해결된다. 12AX7 두 개

●PL-P의 내부. 상단의 길쭉한 것이 배터리라.



게 하는 부품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을 어떻게 꾸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다면체의 각을 갖는 복잡한 형태가 된다. 내부에는 기어와 클러치로 좌우 연동되거나 단독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그 옆에는 PL-P 디자인의 최대 포인트라 할 원형의 레벨 미터가 배치된다. 스위스의 정밀 기계다운 정교함과 디자인은 소유 욕구를 자극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침이 두 개인 듀얼 포텐서 미터다. 스테레오 출력 레벨을 지시하거나 전압 체크 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침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 미터 기능은 충분하다. 오른쪽은 볼륨 컨트롤 노브가 배치된다.

사실 이 프리앰프는 출시되자마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미국 오디오 저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많은 리뷰어들의 공통적 결론은 포노 이퀄라이저의 우수함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필자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마치 마란츠 7의 음이 더욱 맑고 투명해진 듯한 느낌을 주는데, 최근 프리앰프의 선명함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샤프하다고 표현하는 투명감과는 다른, 목관 악기의 유기질적인 음감에 가까운 선명함에 가깝다. 과거 진공관 앰프처럼 험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고, 단체의 기기

하나로 대부분의 카트리지에 대응하는 편리성은 LP 재생의 매력을 되살릴 것 같다.

라인 입력으로 들어보면 최신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 같은 기민성과 분해능과는 다른 진공관 앰프 특유의 투명한 음감이란 인상을 주는데, 투명하지만 예각의 날카로움이 없는 유연성은 역시 진공관 앰프의 특질을 잘 살린 것이 아닌가 한다. PL-P가 들려주는 음은 유연하고 아름답다. 솔리드스테이트 타입 광대역 앰프의 건조한 선예도를 좋아한다면 이 앰프와의 인연은 없을 것이지만, 음영 질은 콘트라스트의 깊이를 기대한다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양극의 앰프가 될 것 같다. 이어 나온 동사의 845 파워 앰프와 조합한 음은 세부적인 디테일을 중시하는 감각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전체적 조화를 중시하는 터치와 강렬함을 우선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작지만, 그리는 음의 세계는 대범하고 스케일이 큰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그런 프리앰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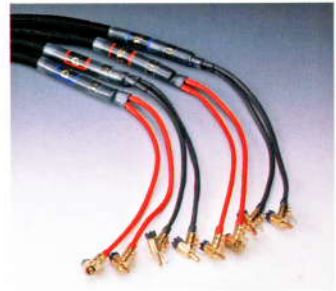
〈포노단〉(MC) ●감도: 0.1mV ●로딩: 47~837 pF ●S/N비: 74dB (MM) ●감도: 0.5mV ●임피던스: 50kΩ ●S/N비: 80dB
 〈라인단〉 ●입력 임피던스: 100kΩ 이상 ●출력 임피던스: 60Ω ●S/N비: 88dB ●대역폭: 22Hz ~60kHz, +0/-1dB ●크기(WHD): 310×76×254mm ●무게: 4.45kg ●수입원: 우리 무역 (02-573-3743) ●가격: 13,500,000원

●오른쪽 측면에 마련되어 있는 출력 및 테이프 루프 단자.



PAD

MAXIMUS INTERCONNECT & SPEAKER CABLE



고순도 원음의 또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오디오 케이블의 아방가르드 PAD사와 미국 버클리 대학 전기 컴퓨터 공학팀이 만나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신소재 합금 접지 도선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밀레니엄 시대의 오디오 케이블의 새 이름, 맥시머스 케이블에서 새로운 2000년의 음을 느껴보십시오.

성민트레이딩
 02-3492-2586